■ 르포 수마 할퀴고 간 신안군 자은면 대율리

흙더미 덮친 마을 '전쟁터 방불'

주택·비닐하우스 파손 … 논·밭농사 망쳐

계속되는 폭우에 복구 작업도 더뎌 한숨

지난 7일 쏟아진 '물 폭탄'이 신안의 한 어촌마을의 지형을 바꿔놨다. 마을 주민들은 수마(水魔)가 할퀴고 간 상처를 치유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상흔은 쉽게 아물지 않고 있다.

수해가 발생한 지 닷새째인 12일 오전 11시40분 신안군 자은면 대율마을. 유실된 수로의 제방은 위태로워 보였고 벼·콩·양파 등 농작물이 여물어야 할 논밭은 모래 더미로 변한 채 가라앉아 있다. 토사 더미에 묻힌 보금자리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한숨소리만 적막한 동네를 흔들고 있다.

70세대, 150명의 주민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않고 재기의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수마가 남긴 상처와 절망감은 너무 깊어보였다. 수로 주변에는 반파된 가옥과 뿌리째 뽑힌 나무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평시 같으면 피서객들로 붐빌 마을인데 복구작업을 하는 중장비 소리만 요란했다.

'S자'형으로 된 폭 4m, 높이 2.5m의 수로(水路)를 따라 형성된 주택 30여 채는 폭격을 맞은 듯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돼 있었다. 반파(半破)된 토담과 가로 40㎝, 세로 30㎝의 흙마루 밑 석축 만이 이곳에 집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반파된 주택 옆에 마련된 비닐하우스에선 서너 명의 주민들이 젖은 옷가지와 가재도구를 씻고 있었다. 못쓰게 된 TV·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마을 어귀에 한데 모았다.

하지만 수마의 흔적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리면서 수해복구작업이 더뎌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 김복규(71)씨는 "이곳에서 나고 자랐는디, 이번처럼 물난리를 겪긴 처음이여. 주민들 모다 논·밭농사 진디 전부 망쳐부렀어. 복구라도 빨리 해야 할 것인디. 비가 와서 암 것도 못하고 있당게"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폭우로 신안군 자은면 대율·구영마을 등지에서는 130세대, 300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유실·침수당한 농경지는 1천358ha에 달한다. 피해액 만도 26억5천400만원이다. 주민·공무원 등 2천여명은 굴삭기 등 장비 131대를 동원, 복구작업에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남도는 우선 대율·구영마을의 유실된 수로를 복구하는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 마을 주민 최춘익(55)씨는 "복구작업이 더디지만 으짤 것이요. 속타는 마음 다시 부여잡고 일어서야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일 아니겄소"라며 쓴 웃음을 지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수해가 발생한 지 닷새째인 12일 신안군 자은면 대율마을.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전남도 관계자 10여명이 지름 1.2m의 모래주머니로 응급복구한 수로와 반파된 주택 등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폭우 피해액 110억 넘었다

집중호우 계속 … 피해 규모 더욱 늘 듯

지난 7일 집중호우에 이어 주말·휴일까지 계속된 비로 전남지역 비 피해 규모가 110억 원대를 넘어섰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도내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재산피해액은 116억원9천500만 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시·군별로는 나주시가 48억2천만원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고 ▲신안군 26억4천500만 원 ▲순천시 10억8천6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농작물이나 과수·가축 등의 피해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피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날 호우피해가 큰 신안군 자은도를 방문해 농경지와 주택·소하천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는 13일까지 30~80㎜의 비가 더 내리고 15일까지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12일 강우량은 ▲화순 112.5㎜ ▲순천 103㎜ ▲나주 95㎜ ▲광주 71㎜ 등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의사 살해 흉기 발견

광주 여신도 2명 피살사건

우울증 환자 연쇄살인 확인

지난 8일 발생한 '광주 여성 신도 피살사건'과 지난 5월 '여의사 피살사건'은 교회와 성당에 적개심을 품은 30대 우울증 환자의 계획적인 연쇄살인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산경찰은 지난 8일 광주시 광산구 모 성당에서 여신도 염모(48)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38)씨가 지난 5월 20일 광주시 북구 H교회에 앞 길에서 가족들을 기다리던 안모(여·44)씨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 국제결혼한 부인 G(25)씨가 가정불화 등으로 몽골로 돌아가자 5월 12일 몽골로 가 처가 식구들을 만났으며, 이때 교회에 다니는 처형 등 처가 식구들로부터 '(G씨가) 죽었다'는 말과 함께 냉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사흘간의 몽골방문 당시 교회와 성당, 여성에 대한 적개심이 생겼으며, 여성신도를 연쇄살해한 동기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씨는 북구 H교회 인근에서 여의사를 살해하기에 앞서 광산구 월계동 모 성당을 5차례나 사전 방문했으나, 성당 사무장이 부르자 달아나는 등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지난 8일부터 박씨의 진술과, 범행 수법, 범행 장소 등을 통해 박씨를 여의사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박씨의 잦은 진술 번복과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씨는 성당 여신도 살해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1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의사를 살해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께 나주시 산포면 박씨의 고향집에서 어머니 양모(65)씨를 만난 뒤 박씨의 행동은 180도 변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박씨의 진술을 토대로 12일 낮 광주시 남구 대촌저수지에서 여의사 살해사건에 사용된 흉기를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했다. 경찰은 여의사에 대한 살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박씨의 성당 여신도 살해사건을 신고한 시민 A(27)씨에게 13일 범죄 신고포상금 200만원과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아내 쇠사슬 묶어 염소 우리 감금

가출·불륜 의심 … 둔기로 폭행도

여수경찰, 40대 구속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목을 쇠사슬로 묶고 폭행한 뒤 가축우리에 가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경찰은 11일 가출한 아내를 폭행한 뒤 집 근처 야산의 가축우리에 가둬둔 한모(48)씨를 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30분께 염소우리에 아내 A씨를 묶고 목에 쇠사슬(길이 2m, 두께 0.5㎝)을 걸어 자물쇠를 채운 뒤 온몸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이 과정에서 "죽여버리겠다"며 아내를 협박하고, 둔기로 온몸을 때린 뒤 이날 밤 11시50분께 온몸이 멍든 아내를 내버려둔 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3개월 전 가출한 아내를 찾아 돌아다니다 당일 오전 7시께 여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아내를 발견하자 흉기로 위협해 집으로 데려간 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편이 떠나고 40분 뒤인 이튿날 새벽 0시30분께 테이프로 묶여 있던 손발을 풀고 마을로 내려와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결국 119구조대의 도움으로 납치 17시간 만에 자유의 몸이 됐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지난 7일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범행 후 곧바로 달아났으나 지난 7일 자신의 집 근처 카센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나원참 〈7853〉 김종두

승용차 탄 5명 가스중독

10일 오후 7시25분께 영암군 학산면 한 도로에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운전자 A(여·36)씨 등 일가족 5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차량 에어컨 가스의 냉매유출이나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가스중독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영암=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경찰이 성추행 피해자 손가락 물어

쌍나팔

○…현직 경찰관이 성추행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30대 여성이 심하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깨물어 물의.

○…12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B지구대 소속 A경위가 이날 새벽 2시30분께 성추행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김모(여·31)씨의 오른쪽 두번 째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것.

○…김씨는 "새벽 1시께 무등시장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가슴을 더듬었다. 그런데 경찰은 용의자를 평소 잘 알고 있다는 듯 태연하게 안부를 물었다"며 "A경위는 이에 항의하는 내 손가락을 깨물었다"고 주장.

○…A경위는 "손가락질을 하는 김씨의 손가락이 우연히 입속으로 들어와 얼떨결에 깨물게 됐다"고 해명.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